

임실군, 예산 4543억원 확정

올해 본예산 대비 179억원 증액... 농업경쟁력 강화·복지증진 등 중점

임실군의 2021년도 예산안 4,543억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내년도 다양한 분야의 군정운영에 탄력이 붙게 됐다.



심민 임실군수

군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계층별 복지증진 등에 방점을 둔 내년도 예산 4,543억원이 군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4,364억원 대비 179억원(4.10%) 증가한 수치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급년 대비 253억원(6.30%)이 증가한 4,26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74억원(20.88%) 감소한 280억원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올해 당초예산 대비 8.6% 감소했지만 적극적인 세수 발굴과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23억원, 국도비 보조금 177억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1,024억원(22.54%), 사회복지분야 804억원(17.70%), 환경분야 663억원(14.59%),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 444억

원(9.77%), 문화 및 관광분야 282억원(6.22%)순이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계층별 맞춤형 복지증진은 물론 환경과 문화관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세심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촌·성수·신평·지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55억원,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 32억원, 갈마·연화·발산지구 농어촌생활여건 개조사업 17억원, 임실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25억원, 오수지구 도시재생 안정사업 15억원 등이

다. 임실치즈 명품화를 위해 제3기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 조성 24억원,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관광지 육성 22억원,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건립 20억원,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 조성 17억원,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육정호 및 성수산 생태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삼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 22억원, 제2기 삼진강에코뮤지엄 조성 7억원, 육정호 물문화 돌레길 조성 10억원, 태조 희망의 숲 조성 18억원,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 8억원, 성수

산 자연휴양림 보완 15억원,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2억원 등을 편성했다.

생활 SOC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임실·오수 행복누리원 건립 47억원,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 12억원, 관촌체육문화센터 건립 11억원,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 사업 10억원,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 8억원, 전북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 6억원,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 4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20억원, 공공동물장묘시설 조성 5억원,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5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23억원, 필봉 풍물 민속마을 조성 6억원, 임실 순창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 4억원,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3억원 등을 편성했다.

심민 군수는 "2021년 예산은 군민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넘어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분야별로 소외됨 없이 재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민안전교육 이행 '우수'

남원시,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 국민안전교육 이행 실태점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2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9년 안전교육 실적 4개 분야 21개 지표로 평가했다.(안전교육 추진실적, 기반조성, 기관장 관심도, 협력체계 구축)

평가는 지난 6~7월 서면평가와 부시장 인터뷰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교육 추진실적 ▲안전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안전교육 기관

장 관심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고르게 좋은 성적을 받았다.

남원시는 현재 68개 세부 안전영역별로 승강기, 낙상사고 예방, 화재예방, 전기안전, 물놀이안전, 식중독 및 중독예방, 응급처치 교육, 자살예방 교육 등 각 기관별로 생애 주기별로 꼭 받아야 할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및 시민 안전체험 버스 운영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쉽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우수기관 선정

순창군이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전교육 추진실적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7년 5월에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점검에서 순창군은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공정한 점검을 위해 민간전문가 27명과 공무원 9등 총 36명으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점검했고, 시·군·구는 관찰 시·도에서 시도안전교육점검단을 구성해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중앙부처 6개와 시·도 5개 기관, 시·군·구 68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도내 시·군·구는 순창을 포함해 4곳이 선정됐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된 평가에서 순창군은 4개 분야 21개 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얻으며 우

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해 6대 안전분야 안전교육을 진행해 전체 4,548명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또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추진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지난해 6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라는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어린 학생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며,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키웠다.

황승주 순창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순창건설을 군정의 최우선으로 삼아 노력하고 있다"면서 "맞춤식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군민을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생애주기별 맞춤식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비대면 안전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남원시는 코로나19의 피해를 받았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지원금 9억 9,140만원을 1,819가구에 지급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존 중위소득이 7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중소도시)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해외마케팅, 폐업

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 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 등)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조환익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지원심의회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봉황인재학당 입학생 안전한 등·하원 지원

(재)임실군에향장학회(이사장 심민)는 22일 2021년도 봉황인재학당 입학생 등·하원 택시 운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유)임실군합동택시 김중원 대표이사와 임실개인택시 단위조합 왕동열 조합장은 (재)임실군에향장학회 이사장인 심민 군수와 함께 군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원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택시는 23대 정도로 입학생 80여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1회 왕복 운행한다.

학기 중에는 각 학교에서 봉황인재학당까지, 방학 중에는 권역별 마을에서 봉황인재학당까지 운행하고, 수업 후에는 집까지 안전하게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공무원 25명 비대면 이·퇴임식

남원시가 지난 21일 '2020년 하반기 이·퇴임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치러진 퇴임식은 이순례 보건소장을 비롯해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별도의 행사없이 시장님 축하 동영상 및 서한문 발송, 공로패 개발전달 등으로 대체됐다.

이환주 시장은 영상에서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퇴임을 맞이하는 대상자에게 축하메시지를 전하며,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어 아쉽지만, 물리적 거리를 넘어 남원에 쏟았던 수고와 열정에 대한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이·퇴임하는 공무원은 총 25명으로 정년퇴직 4명, 명예퇴직 2명, 공로연수(이임) 19명으로 ▲정년퇴직 나철순 성경호 조기영 주만식 ▲명예퇴직 박상근 이용궁 ▲공로연수 강병훈 김선이 김현주 나상우 마우현 성길경 양선모 유세환 이상이 이순례 이일우 이재우 이정현 이종근 이준무 장성주 장진숙 진영신 최건호 등 총 25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 횡단보도 앞 배려의자 설치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지미라)가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시 한번 두팔 걷고 나서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는 22일 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순창을 내 주민 통행량이 많은 건물목과 횡단보도 앞 등 10곳에 배려의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는 22일 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순창을 내 주민 통행량이 많은 건물목과 횡단보도 앞 등 10곳에 배려의자 설치를 완료했다.

배려의자는 지주에 부착된 접이식의자로 앉았다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혀져 다른 보행자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으며,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거나 신호대기 중 무단횡단을 막고 잠시 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이다. 타 지역에서도 노란색의 '장수의자'라는 명칭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된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타 지역과는 차별적으로 순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맞춰 의자색상을 밝은 핑크색으로 바꾸고, 군 여성친화도시 슬로건과 함께 배려의자로 명칭된 스티커를 부착했다. 군 여성친화도

시 조성정책에 대하여 지역민에게 홍보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셈이다.

특히 순창을 지역 내 노인보행자나 장애인 등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횡단

보도 앞을 비롯해 많은 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제일고와 순창고 사거리 구간에도 일부 설치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